

EU 폐차 리사이클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표준원(원장 김동철)은 2000년 10월21일 EU의 폐차 리사이클법이 시행됨에 따른 국내 자동차업계의 수출에 타개를 위해 「EU 폐차 리사이클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10월19일 삼성동 COEX에서 개최했다.

2000년 10월 발효된 EU 폐차 리사이클법에는 폐차의 연차별 리사이클링 목표치를 설정함과 아울러 2003년 7월1일 이후 모든 판매차량에 대해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등 중금속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국내 자동차의 수출증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의 폐차 리사이클법 주요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발효시점	- 2000년 10월 21일
적용대상	- M1, N1 차량(예비부품, 교체부품 포함) * M1(9인승이하의 승용·승합차량) N1(차량총중량이 3.5ton 이하의 트럭)
폐차 회수	- 무상 회수
리사이클 목표치	- 2006. 1. 1까지 : 80% Recycling & 85% Recovery - 2015. 1. 1까지 : 85% Recycling & 95% Recovery (형식승인법 개정 3년 이후 출시 차량 : 2015년 법규목표치 만족해야 함)
관련정보 제공	- 신차종 출시 6개월 이내에 해체메뉴얼 제공
폐기물 유해물질	- 규제대상 : 납, 카드뮴, 6가 크롬, 수은 - 법규 규정량 이상 함유 금지 : 2003년 7월 1일 이후 모든 판매차량

한국은 2000년 자동차 311만4000대를 생산해 세계 5위이고, 수출량은 167만6000대로 세계 6위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부품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규제를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중금속 분석방법조차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철강, 플라스틱, 고무 등 소재별로 중금속 분석방법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기술원에 설치된 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를 통해 폐차의 리사이클 기술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독일, 일본 등 국내외 폐차 리사이클 및 유해물질 전문가를 초청해 자동차 소재별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사용현황 및 대체기술, 중금속 분석방법의 표준화에 대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 EU 폐차 리사이클 세미나 프로그램 ■

- 10:00- 10:10 인사말(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동철 원장)
- 10:10- 10:40 21C 환경과 안전유해 대책(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형기 과장)
- 10:40- 11:10 EU 폐차 리사이클 법규 현황(현대·기아 자동차 홍준희 차장)
- 11:10- 12:00 고무부품의 유해물질 사용현황과 대체기술

(Gummiwerk Kraiburg GmbH. - Director of R&D Dr. Adolf Zellner)

13:20- 13:50 자동차용 세라믹 부품의 유해물질 사용현황 및 대체기술(요업기술원 최병현 박사)

13:50- 14:40 플라스틱부품의 유해물질 사용현황 및 대체기술

(Dupont Japan Asia Pacific - Product Manager M. Nozaki)

14:40- 15:10 자동차도료의 중금속 사용실태 및 대체기술 개발동향(대한비케미칼 조영호 이사)

15:30- 16:20 표면처리용 6가크롬의 사용현황 및 대체기술

(Nihon Dacro Shamrock Co., Ltd. Fukushima Ichiro)

16:20- 16:50 자동차부품의 소재별 중금속 분석방법 표준화(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이현자 연구관)

< Chemical Daily News 2001/ 10/ 20 >